

깨어나라, 하와여!(Wach auf, Eva!)



RVB | VKW

Wach

Wach







*nglicher & unveränderter Absicht
der vollen Gleichstellung der Frau.*

Katharine C. Bushnell

여성의 온전한 평등에 관한 하나님의 처음부터 변함없는 뜻, 그 성경적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캐서린 C. 부시넬(Katharine C. Bushnell)

캐서린 C. 부시넬

깨어나라, 하와여!

이 번역서를 나의 아내 자비네(Sabine)와 우리 딸들과 손녀들에게 바칩니다.

교정을 맡아 준 아내에게, 제목과 표지 디자인을 맡아 준 딸과 사위에게,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어 준 세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대화가 없었다면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캐서린 C. 부시넬

깨어나라, 하와여!

여성의 온전한 평등에 관한 하나님의 처음부터 변함없는 뜻, 그 성경적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RVB

독일 국립도서관 서지 정보

독일 국립도서관은 이 출판물을 독일 국가 서지에 등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서지 정보는 인터넷 <http://dnb.ddb.de> 에서 볼 수 있습니다.

ISBN 978-3-944472-25-6 (RVB)

ISBN 978-3-86269-206-4 (VKW)

© 독일어 번역본: Reformatorischer Verlag

Friedensallee 76, 22765 Hamburg

영어 원제: "God's Word to Women"

독일어 번역, 조판, 레이아웃: H. 크리스티안 베제(H. Christian Beese)

표지 디자인: LUI & LEI Hamburg

표지 사진:

Takayuki Ohara / EyeEm, Getty Images

blacked, Getty Images

성경 인용은 따로 밝히지 않는 한 모두 Elberfelder 성경(독일어 성경 번역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인쇄: CPI

RVB

Hamburg Bonn

저자에 대하여

캐서린 C. 부시넬(Katharine C. Bushnell)(1855-1946)은 용기 있고 재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구절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의사, 선교사, 십자가의 대사, 개혁가, 저술가, 강연자였으며, 일곱 언어를 구사하고 고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탁월하고 독창적인 학자였습니다. 부시넬은 의료계를 떠나,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일을 했습니다. 19세기 여성 운동의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WCTU, 기독교 여성 금주 연합)**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형편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위치는 부시넬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번역이 여성의 사회적, 영적 예속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896년 그녀는 WCTU를 떠나, 남은 생애를 글을 쓰는 일과, 여성의 온전한 평등에 관한 하나님의 처음부터 변함없는 뜻, 그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캐서린 부시넬의 **God's Word to Women**은 여성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꼼꼼히 살펴본 획기적인 연구서입니다. 제시 펜루이스(Jessie Penn-Lewis)는 이 책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계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경을 열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이 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사람이 될 자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두신 일을 할 자유를 전해 준 책입니다.

“캐서린 부시넬은 자기 삶이 별다른 영향을 남기지 못했다고 믿으며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셨다.”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던 시절, 부시넬은 중국어 성경이 여성의 사역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남성적 편견이 영어 번역에도 영향을 주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부를 더 깊이 했습니다. 나중에 WCTU 일로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녀는 기차와 배 안에서, 그리고 머물던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활용해 성경 번역들을 원어의 본문과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경험과 연구를 통해 캐서린 부시넬이 **God's Word to Women**을 쓰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1908년 통신 강좌로 시작된 이 책은 처음에 부시넬이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초기에는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책은 곧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시넬은 자기 삶이 별다른 영향을 남기지 못했다고 믿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책은 다시 발견되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계속 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책은 마침내 성경적 여성 평등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마땅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차례

과		쪽
	현 편집자 겸 번역자의 머리말	11
	1943년판 서문	15
	저자 서문	19
1	기본 원칙	21
2	(정당한 그리고 부당한) 본문 비평	25
3	사실과 우화	29
4	악의 시작	33
5	“갈비뼈” 우화	37
6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 (창세기 2:24)	41
7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 (결론)	45
8	초기 시대 여성의 존엄	49
9	하와의 선택과 아담의 선택 (창세기 3장)	53
10	하와가 믿는 사람이 되다	57
11	하와와 그녀를 비방하는 자들	61

과		쪽
12	아담과 하와의 행동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65
13	하나님이 여자를 저주하셨는가?	69
14	잘못된 해석 (창세기 3:16)	73
15	사탄이 숨어 기다리다	77
16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	81
17	테슈카(Teshuqah)의 고대 번역들	85
18	테슈카 번역의 역사	89
19	도표로 보는 개관	93
20	종살이하지 않는 아내들	95
21	첫 가정의 분열	99
22	첫 죄들과 그 열매	103
23	작은 전제에서 끌어낸 엄청난 결론	107
24	작은 전제에서 끌어낸 엄청난 결론 (결론)	111
25	여자는 잠잠해야 하는가?	115
26	여자는 잠잠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4:34)	119
27	여자는 잠잠해야 하는가? (계속)	123
28	여자는 잠잠해야 하는가? (결론)	127
29	베일을 둘러싼 궤변	131
30	베일을 둘러싼 궤변 (계속)	135
31	베일을 둘러싼 궤변 (결론)	139
32	바울이 베일에 대해 실제로 가르치는 것	143
33	바울이 베일에 대해 실제로 가르치는 것 (결론)	147
34	어떻게 “권세”가 “베일”이 되었는가	151
35	어떻게 “권세”가 “베일”이 되었는가 (결론)	155
36	구약성경에서의 머리 됨	159
37	신약성경에서의 머리 됨	163
38	“복종”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167
39	여자는 순종해야 하는가?	171
40	여자에 관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디모데전서 2:8-15)	175

과		쪽
41	역사의 빛에서 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179
42	역사의 빛에서 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결론)	183
43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풀이	187
44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풀이 (계속)	191
45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풀이 (결론)	195
46	바울의 논리를 위한 불필요한 변명들	199
47	남편이 머리 됨에 관한 맺음말	203
48	“두 종류의 저울추”	207
49	우리의 믿음은 원문에 근거해야 한다	211
50	겸손을 배우는 시간	213
51	겸손을 배우는 시간 (결론)	217
52	온유란 무엇인가?	221
53	여성을 위한 온유와 겸손	225
54	여성의 역사에서 새로 발견된 장	229
55	족내혼과 족외혼	233
56	족외혼의 기원	237
57	족외혼의 참된 원인	241
58	원시 시대 여성의 존엄을 보여 주는 더 많은 증거	245
59	더 많은 증거 ... (결론)	249
60	원시 시대의 여성에 관해 더	253
61	친족 관계는 어머니 쪽 혈통으로 따진다	257
62	남성 친족 혈통으로의 이행	261
63	“누가 그의 세대를 생각하리요?”	265
64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잘 입증된 사건	269
65	동정녀 탄생	273
66	그리스도인 가정의 설립	277
67	그리스도인 가정의 설립 (계속)	281
68	그리스도인 가정의 설립 (계속)	285
69	그리스도인 가정의 설립 (결론)	289

과		쪽
70	이삭과 리브가	293
71	모세의 율법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297
72	모세의 규례와 여성	301
73	모세의 규례와 여성 (결론)	305
74	구약성경과 일부다처제	309
75	구약성경과 일부다처제 (결론)	313
76	고대와 그 이후 시대의 여성	317
77	성적 편견이 번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다	321
78	성적 편견이 번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다 (계속)	325
79	성적 편견이 번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다 (결론)	329
80	“야엘은 복을 받을지어다”	331
81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무력하지 아니하리라”	335
82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무력하지 아니하리라” (결론)	339
83	Pericope de Adultera(간음한 여인 단락) (요한복음 8:1-11)	343
84	이 단락(Pericope)의 진정성	347
85	“너덜너덜하게 찢긴 가장자리”	351
86	“할 수 없다”인가 “하지 않는다”인가 (마태복음 19:11)	355
87	비상 상황을 위한 조언 (고린도전서 7장)	359
88	구약의 여선지자들	363
89	여성은 설교해도 된다	367
90	여성은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371
91	여성들도 증인이었다	375
92	여성들도 증인이었다 (결론)	379
93	증인으로 준비되는 여성들	383
94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여성들	387
95	여성의 위대한 사명	391
96	여성을 위한 또 하나의 기름 부음	395
97	성경 예언의 본질	399
98	“큰 이적”	403

과		쪽
99	“그 여자”는 누구인가?	407
100	장자권인가, 팔죽 한 그릇인가?	411
	부록:	
	성경 구절 색인	415
	주제어 및 인명 색인	430
	테슈카 도표	461
	제49과와 제79과에서 번역 시 생략된 단락들	463
	캐서린 부시넬 연보	467

독일어판 편집자 겸 번역자의 머리말

성경을 믿는 관점에서 쓴 “여성에 관한 책”이 또 하나 나온 것일까요? 그런 책은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책들은 (거의) 모두 하나의 같은 견해를 대변합니다. 이른바 “상호보완주의”라는 견해입니다. 이 용어는 서로 보완한다는 생각, 남자와 여자가 같은 눈높이에서 만난다는 생각을 전해 줍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완곡어법으로 드러납니다. 위키백과(Wikipedia)에 따르면 “완곡어법(완곡한 말, 미화, 에두른 말, 감싸는 말, 꾸밈말이라고도 한다)은 한 사람이나 집단, 사물이나 사태를 미화하거나 누그러뜨리거나 가리려는 의도로 일컫는 언어 표현”입니다. “상호보완주의”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이 표현은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된다는 사태를 미화하고 누그러뜨리며 가리려는 의도로 묘사합니다. 이 용어 자체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지만, 그 내용, 곧 그 뒤에 숨은 교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려 하듯 창조만큼 오래된 것은 아니며, 타락만큼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상호보완주의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주의자들”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 논쟁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복음주의 세계의 넓은 범위에서 “상호보완주의적” 견해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 제공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책은 “평등주의적” 견해를 위한 강력한 변론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 곧 굴종하거나 복종해야 한다는 교리는 성경을 믿는 많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정통 신앙의 *sine-qua-non*(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교리는 바울 서신과 베드로전서의 몇몇 구절에 근거를 두지만,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창조 이야기, 곧 창세기의 첫 장들까지 가며, 심지어 그 교리를 거룩한 삼위일체의 내적 구조에까지 닻을 내립니다. 이때 이 교리는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하와의 더 큰 “원죄책”을 전제합니다. 그 죄책이 오늘날까지 줄곧 여성을 짓누르고 손상시키며, 땅 위의 구속받은 교회의 삶에서 평등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드러진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제물이 얼마나 멀리 미치며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의문에 부치기 때문에, 이

논쟁에서는 다른 아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호보완주의의 단호한 대변자들에게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사실상 여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중보자로 묘사함으로써, 들을 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교리의 복음에 어긋나는 성격을 공공연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바울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2:5)과 모순됩니다.

비교적 젊고 아직 연약한 독일의 개혁주의 운동도 이런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특히 미국의 복음주의와 신칼뱅주의를 통해, 이 교리는 이 운동의 구원론적, 인간론적, 교회론적 기초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영적인 젖과 함께 빨아들인 많은 사람은 여성의 위치에 관한 이런 사고 밖에서는 신앙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현상은 교회 안의 여성들도 이 견해를 열렬히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여성다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자” 등등 또 다른 일련의 완곡어법이 동원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그리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니며 심리적으로도 이해할 만합니다.

또 다른 현상은 “상호보완주의”를 미심쩍게 여기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 대개 몸을 사리며 이에 대한 논쟁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상호보완주의자들” 쪽에서 흔히 공정하지 못한 무기로 벌어집니다. 다른 견해를 대변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사적으로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 페미니스트로 분류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의 일방적인 복종을 뒷받침하는,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선택을 일관되게 부정하는 사람들조차 “여성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계적 질서”를 정하신 그 주권적 자유를 즐겨 내세웁니다.

이 모든 것에는 바울이 그의 편지들에서 지칠 줄 모르고 고발하고 맞서 싸운 그 율법주의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설교 시리즈 전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설교에서 목사는 바울이 “베일”로 무엇을 뜻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순종하고 안전한 쪽에 서기 위해” 모든 여성이 예배 때 만일을 위해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 부인들이 벌써 좋은 본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상호보완주의”의 영적 “제공권”을 옆에서 받쳐 주는 것은 쟁쟁한 이름들, 그리고 높은 평가를 받고 많이 읽히며 그 밖의 점에서는 훌륭한 주석, 스터디 바이블, 교의학 책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책들에서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영적 가르침의 거의 모든 주제와 측면에서는 아무리 작은 언어학적, 주석적 돌맹이라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면서, “여성 문제”에서는 좋게 말해 어느 정도 소홀함이 지배합니다. 거의 조작적인 주석적 교활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그의 Biblische Dogmatik(『조직신학』)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한 가지 점을 다룹니다. 창세기 2:18의 “돕는 배필”(독일어 Gehilfin, ‘여자 조수’)이 원래는 “돕는 자”(히브리어 `ezer)라는 뜻이며, 그가 바르게 설명하듯 이 단어가 하나님 자신에게 자주 쓰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마다 ... 돕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해 종속적이고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씁니다. 이것은 다른

맥락에서는 매우 유능한 지성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돕는 분이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해석자는 아담이 하와에게 두 번 이름을 지어 준 사실 ("여자"(Männin)와 "하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에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일반적인 우월권과 지배권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사람들이 크나큰 구원을 경험한 뒤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 드린 일이 자주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최근 저작에서 가져온 두 가지 예입니다. 더 많은 경우를 들 수 있지만,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상호보완주의" 견해를 대변했으며, "여성 문제"에 대해 감히 다른 견해를 내놓는 사람은 누구나 2000년 교회사와 충돌하게 된다는 주장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교부들이 여성에 대해 매우 의심스러운 견해를 가졌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새로운 빛을 비추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한 교리의 타당성에 대한 논거로 인정한다면, 종교개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도 상당 부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굳게 자리 잡은 거짓 가르침들에 의문을 제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문제"에서도, 교회 안의 두 성별 모두의 유익을 위해 굳어 버린 사고 구조가 깨어지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성별에 따른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도)라는 새로운 정신이 들어올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서구 나라들에서 이 교리에 부여되는 비중은 상당 부분 문명의, 또는 풍요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극도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젊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여성들이 평균 이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캐서린 부시넬은 원래 20세기 초에 통신 강좌로 출판된 이 책에서 우리를 성경 여행으로 데려갑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녀는 "여성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성경 구절을 다룹니다. 성경 언어에 대한 그녀의 탄탄한 지식과 여러 해에 걸친 연구는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많은 성경 단락에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또한 그녀는 이른바 역사비평적 연구의 논증과 다원주의의 논증을 두루 다룹니다. 그녀는 당대의 수많은 자연과학자와 문화인류학자를 인용합니다. 널리 여행한 의료 선교사요 복음의 대사로서, 그녀는 거듭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실제적인 통찰을 들려줍니다.

이 책은 혼자 공부하고 복습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100개의 과 가운데 (거의) 모든 과는 자기 메모를 적는 칸으로 끝나며, 책 끝에는 방대한 성경 구절 색인과, 낱말 풀이가 딸린 주제어 및 인명 색인이 붙어 있습니다.

캐서린 부시넬은 자매들에게 성경 언어 공부에 힘쓰라고 되풀이하여 간곡하고 근거 있게 호소합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읽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교회들이 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침묵과 그늘진 삶에서 해방되어, 복음 안에서 동등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H. 크리스티안 베제(H. Christian Beese), 함부르크, 2020년 10월

제6과 –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

“이러므로 남자[남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할지로다.”

45 창세기 2:24에 나오는 이 근본적인 결혼법에 순종했다라면, 여성들은 결코 단순한 소유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인류 전체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개종자들에게 성경의 결혼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이방 민족들의 도덕적 품위를 위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 여성들이 겪는 억압을 덜어 줄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남편은 아내의 집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지금은 그와 반대로, 아내가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을 계속 더 낳는 사람으로서 학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딸을 낳을 때 그러합니다. (2) 남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나 젖먹이나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에게 매여 있지 않으므로, 낯선 집에서 노예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떠나 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내와 자녀의 부양을 자기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떠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성이 주는 제약과 어머니 사랑의 힘이 어머니들을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자들의 희생물로 만듭니다. (3) 남자는 폭력으로 정조를 빼앗기거나 그 몸이 낯선 집안의 돈벌이 상품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은 죽은 남편의 낯선 집에 남겨진 과부들이 너무나 자주 겪는 운명이어서, 몇몇 동양 나라들, 특히 인도에서는 “과부”라는 말 자체가 오명이 되어 있습니다. (4) 임신과 출산 기간에 어머니는 자기 친정어머니 곁에 있을 때,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든 그 가까이든, 대개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낯선 집에서는 그런 때에 흔히 수치스럽게 방치되며, 이것이 길게 보면 인류 전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5) 결혼 후에 딸은 집에 두고 아들은 결혼 후에 집에서 내보내는 관습은 조혼을 크게 억제할 것입니다. 부모는 가족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식구들과 그렇게 빨리 헤어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6 모든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점에서 처음부터 세상을 여성에게 좋은 곳으로 만들었고,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 이 결혼법으로 여성의 비하를 단단히 막아 두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법은 실로 인간의 삶의 방식에 관한 최초의 사회 윤리적 법입니다. 더 나아가 이 법이 인류 역사의 가장 이른 시대에는, 몇 가지 예외를 빼면, 오늘날처럼 죽은 문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점점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부모 집에서 함께 살거나 자주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내는 결코 부모의 보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딸들의 “타고난 보호자”는 **부모**였습니다 –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신뢰에 걸맞지 않음을 드러내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기 역사의 관습은, 남편이 아내를 합당하게 돌볼 능력이 있음을 실제로 증명할 때까지 그를 어느 정도 건전한 의심을 품고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딸들의 ‘타고난 보호자’는 부모였습니다 –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신뢰에 걸맞지 않음을 드러내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7 아내가 결혼 후에도 자기 친족 곁이나 그 가까이에 머문다면(그래서 그 가족이 그녀의 “타고난 보호자”가 된다면), 그 가장 큰 이점은 무엇보다 사회의 도덕을 강하게 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미국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한 곳에서 한 의사가 경찰의 지원을 받아 그 도시의 “사회악”을 매우 철저하게 조사했고, 평판이 나쁜 처지에 있는 수백 명의 여성과 소녀의 진술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그의 책이 지금 제 손에 없어서 인용할 수는 없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그의 결론은 **악한 남자와의 결혼**이 매춘의 흔한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자기와 잠자리를 한 남자들과, 그들의 성품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잘 알지도 못한 채 결혼했습니다. 그 뒤 결혼은 그들을 남편에 비해 너무나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해서, 그들은 폭력에 의해 혹은 근심에 못 이겨 거리로 내몰려 [남자들의] 부도덕을 상대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처음부터 아내에게 그런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도록 강요할 생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올바른 예절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때가 오자 아내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생계를 돕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런 위험이 닥칠 때 아내의 친족이 개입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결혼법은 그들이 자기 딸이나 누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남자는 원하기만 하면 자기 아내를 세상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48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려면 동양의 큰 도시 한 곳만 가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언젠가 그런 동양 대도시의 악명 높은 거리를 어두울 때 찾아갔던 일을 저는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수많은 불행한 소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가 동양 무역 상사의 점잖은 도매상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젊은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예 사냥꾼들이 유럽과 영국과 미국의 마을에서 이 소녀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잠자리를 하고, 정식 결혼식을 올린 뒤, 동양의 노예 시장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저녁이면 그들의 “남편들”은 자기 소유의 집들을 돌며 그날 밤을 위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근처에 있는 그들의 클럽하우스(그들이 없는 동안 우리가 둘러보았습니다)로 가서, 자기 여자 노예들이 번 돈으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고, 새벽 두세 시에 실컷 술을 마신 뒤 돌아와서 노예가 된 아내들이 그동안 번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빼앗았습니다. 돈이 평소보다 적으면 그들을 채찍질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백인 노예 매매는, 악한 남편으로부터 여성을 합당하게 보호해 주는 결혼법이 생기기 전에는 결코 치명타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호는, 아내의 친족이 점잖은 사람들일 경우 그들이 법적으로 그녀의 “타고난 보호자”로 인정받기 전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이 아내를 외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 지나치게 남을 잘 믿는 아내가 따라갈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 그 이주가 그녀 가족의 결정에 어긋난다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법정에서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결혼법은 자기 딸들을 향한 그분의 아버지다운 돌보심과 지키심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49 바로 이런 결혼 관계의 남용을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정도로)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국에 가서 결혼할 일본 소녀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비밀 결혼 중개 조직이 있습니다. 또 이 조직의 남자들은 소녀들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거듭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본 남자들은 좋은 집안 출신인 경우가 많지만, 그들 자신은 외국에 머무는 동안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녀들의 부모는 그들이 딸들과 결혼한 뒤 잘 대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 소녀들은 빚에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밤마다 거리와 일본인 싸구려 여인숙으로 내몰려, 정식으로 결혼한 이 “남편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일본 신사들, 그리스도인 선교사들, 일본 영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법은 자기 딸들을 향한 그분의 아버지다운 돌보심과 지키심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맨 처음부터 그분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계명은 그분이 딸들의 권리와 품위를 마음에 두고 계심을 보여 줍니다.

제7과 –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 (결론)

50 하나님은 사람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 곧 그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연합을 보여 주는 예표적 상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리스도의 초림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재림의 개념도 담아야 합니다. 두 경우를 함께 볼 때에만 예표가 원형을 온전히 그려 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이 두 사건을 기려야 합니다. 남편이 친족과의 유대를 떠나는 것은, 아내가 출산과 자녀 양육의 위험을 떠안음으로써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균형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31-32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기 친족을 떠나야 한다는 의무를 인용하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는 같은 때에 창조되었고, 처음에는 함께 있었으나 아담에게 임한 “깊은 잠” 동안 나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셨으나 죽음이라는 “깊은 잠”으로 우리에게서 나뉘셨고,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그분의 부활하신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 나뉜 것은 그가 하와와 다시 하나가 되어 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 사건을 기념하여 저절로 그의 입술에서 시가 흘러나왔고, R. F. 호턴(R. F. Horton) 박사가 이를 다음과 같은 운문으로 옮겼습니다.

“She, she is bone of my bone,
And flesh of my flesh is she;
‘Woman’ her name, which has grown
Out of man,—out of me.”

51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다시 오실 것입니다 –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요 16:7) 그분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 곧 아담이 하와에 대해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또 다른 자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인 우리는 또한 “한 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처음으로 체험으로 발견한 것 같습니다 – 그녀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분에게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것은 그분의 몸을 자기의 정당한 소유로 여기는 무의식적인 주장이었고, 성을 넘어선 순결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사랑에게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요 20:11-18)

52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신랑과 그의 남자 친구들이 혼인 행렬을 지어 신부를 그 아버지의 집에서 데려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들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열 처녀에 관한 그리스도의 비유(마 25:1-13)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어기는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다. 처녀들은 **신부의 부모 집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들리자 그를 맞으러 나가서 그와 그 일행을 신부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로 모셔 옵니다. “보통은 신랑과 그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갔다. 그러나 여기서는 처녀들이 신랑을 맞아들이는 일을 맡고 있으며, 혼인은 사사기 14:10에서처럼 신부의 집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보인다”(데 베테(De Wette), 랑게(Lange)에서 재인용).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오신다는 외침에 나가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신부의 집인 이 땅으로 돌아와 혼인 잔치를 벌이며, 거기서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살며 왕 노릇 할 것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4:17; 요한계시록 20:6 참조).

하나님의 결혼법이 여성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을지에 대해 저는 단지 추측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혼법은 인류의 가장 이른 시대에 **실제로 지켜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최근 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면이 허락하는 한) 그들의 발견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53 근대에 들어 이 주제에 관해 처음으로 글을 쓴 사람은 1861년 스위스의 법학자 바흐오펜(Bachofen)이었습니다. J. F. 맥레넌(J. F. McLennan) 씨는 영어권에서 그의 발견을 옹호했고, 이 주제에 관한 자신의 연구도 발표했습니다. 타일러(Tylor), 베스터마르크(Westermarck), 프레이저(Fraser), 에이브버리 경(Lord Avebury, 존 러벅 경(Sir John Lubbock)), 로버트슨 스미스(Robertson Smith) 등 많은 사람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어떤 고대 민족의 역사도 모권제와 가부장제가 함께 있었던 시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완전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우리는 “에돔의 족장들” 가운데 몇몇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54 이 초기 문명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1) 아내의 부모는 그녀 자신의 친족과 더불어 평생 그녀의 “타고난 보호자”로 남습니다. (2) 집안의 재산은 여성들이 지킵니다. (3) 혈통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 계산됩니다. 남자는 결혼하면 자기 친족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성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형태의 문명은 흔히 “모계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세 번째로 언급한 점이 나머지 모든 것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맥레넌은 그리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하락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을 통한 혈통이 옛 의미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어떤 원인도**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없었음을 우리는 본다. 반면에 우리는 점차 커져 간 부계 혈통의 우위와, 이 우위가 가져온 혼인 제도의 변화 속에서 그 하락의 충분한 원인을 알아볼 수 있다.”

55 무엇이 이처럼 모계 혈통에서 부계 혈통으로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대 진화론자들은, 처음에는 전반적인 난혼이 퍼져 있었고, 어떤 남자도 자기 자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모계 혈통만 인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진화론자인 다윈(Darwin)과 스펜서(Spencer)는 그런 난혼이 지배적이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진화론자였으므로, 이것은 그 이론을 매우 강하게 반박합니다. 게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므로, 우리는 진화론자들의 이론을 두고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혼법이 처음에 모계 혈통을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라맥

같은 혐오스러운 인물이 무엇 때문에 성경에 묘사되었겠습니까? 이 결혼법이 깨지고 일부다처제가 시작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창세기 6장의 첫머리 구절에서 우리는 여성들을 “도매로” 차지하는 일에 대해 읽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4장에서 읽는 것처럼 라멕의 아들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쇠로 된 전쟁 무기가 처음 쓰인 것은 여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로잡힌 이 여성들이 자기 친족에게서 끌려 나오자, 그들과 그 자녀는 남편의 친족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계 혈통이 생겨났습니다. 홍수도 여성들을 사로잡는 습관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드보라가 여성들에게 저지른 범죄 때문에 시스라와 전쟁하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 “남자 하나의 머리에 처녀 하나, 처녀 둘.”

56 A. C. 딕슨(A. C. Dixon) 박사는 *London Christian*(1911년 11월 16일)에 실린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이 문명을 보라. 그러면 그분이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남편과 합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은 남자다.” 한 가지 점에서 저는 딕슨 박사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결혼법에 기초한 문명은 여자를 남편보다 우월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편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곱과 그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교훈을 줍니다. 장인을 떠나려 할 때 그는 겸손하게 아내들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남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품삷을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지급되었어야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창세기 31:14-16).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성들이 살던 곳에서는 남자들이 자기 딸을 결혼으로 팔지 않았고, 여자들은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을 세상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는 언어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창세기 20:13) 사라에 관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로 하여금 나와 함께 떠돌게 하셨으므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의 떠돌이 길을 따라가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둘 다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라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셔서, 그녀가 친족 곁에 머무는 일반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혼법에 기초한 문명은 여자를 남편보다 우월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편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제8과 – 초기 시대 여성의 존엄

57 케임브리지의 로버트슨 스미스(Robertson Smith) 교수는 이렇게 씁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결혼이란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로 향하고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족장 역사의 다른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맥레넌(McLennan) 씨는

야곱의 결혼들을 예로 들었는데, 라반은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갈 권리가 없다고 말했을 때 분명히 법을 자기편에 두고 있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의 종은 이삭이 와서 그녀의 백성 가운데 정착하는 것이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사실도 들었다." [이 경우 아브라함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분명히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아내에게서 얻은 자녀들은 입양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삼손의 블레셋 아내도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물고, 삼손이 그곳으로 그녀를 찾아간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2:24에서 결혼의 본래 유형으로 제시된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태고의 표현이, 그가 아내와 같은 혈통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같은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모계 혈통은 혈통의 원형이며, 공동의 모성은 친족 일체성의 원형으로서 셈족의 언어 관습 전체를 지배한다." J. P. 피터스(J. P. Peters) 박사(D.D.)는 창세기의 같은 단락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묘사되는 방식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이야기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또 하나의 부수적 증거를 얻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남자와 합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은 남자다. 여기서 우리는 옛 모권제의 흔적을 보는 듯하다. 그것은 삼손 이야기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 혼인 관계로, 여자는 자기 부족이나 씨족이나 가족 가운데 머물고 남자가 그녀를 찾아간다. 그런 경우 자손은 남자의 가족이 아니라 여자의 가족에 속한다"(Early Hebrew Story, 223쪽).

58 위대한 고고학자 플린더스 피트리(Flinders Petrie) 교수도 이 주제에 대해 흥미로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 그의 글을 조금 길게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동양에서 여성이 언제나 – 지금 이슬람 아래에서 그렇듯이 – 의존적이었다는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서, 족장 시대의 초기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전혀 다른 체제에 눈을 떠야 한다. 대체로 말하면 우리의 현재 체제는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남녀가 완전히 섞여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들이 모든 권리와 재산을 쥐고 있는 체제다. 동양의 초기 이상은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다른 세계를 두면서, 여자들이 자기 권리와 모든 재산을 그대로 지니는 것이었다."

“모계 혈통은 혈통의 원형이며, 공동의 모성은 친족 일체성의 원형이다.”

59 피트리 교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와 외에] 구약¹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등장하는 첫 여성은 사라, 곧 그 이름이 말해 주듯 '씨족의 여성 수장'이다. '사르'(Sar)는 근동에서 지금도 쓰이는, 족장을 가리키는 오래된 일반적 명칭이다. ... 그녀의 독자적 지위는, 그녀가 아브라함과는 꽤 독립적으로 바로의 궁전이나 아비멜렉의 궁정에서 살았다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후대 저자들이 이를 해명해 없애려는 어떤 시도도, 최근 몇 해 동안 그저 무시되어 온 이 독립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라는 마므레에 독자적인 거처를 두고 그곳에 살았고, 그동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았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애도하고 장사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행하는 동안과 그 후의 삶에서 그녀의 지위는 결코 은둔한 의존 상태가 아니라, 독립적인 씨족의 수장, 곧 '부족의 어머니'의 지위였다.

60 “사라에게 딸이 없었기 때문에 씨족을 이끌 사람을 가족 가운데서 데려와야 했고, 그래서 리브가를 옛 고향에서 데려왔다. 사라의 공식 장막은 이삭에 의해 마므레에서 사흘이나 나흘 길 떨어진 브엘라해로이로 옮겨졌고, 리브가가 오자마자 그 장막에 머물게 되었다. 그 후에 이삭이 그녀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만큼이나 독립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리브가에게는 뒤를 이을 딸이 없었으므로, 야곱은 서열상 맏이인 레아와 결혼해야 했고, 레아의 지위가 그렇게 확보되기 전에는 라헬을 얻을 수 없었다.

61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는 열한 아들 가운데 딸이 하나만 언급되는데, 그녀가 디나, 곧 ‘여성 재판관’[이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으로, 씨족의 수장인 레아의 딸이다. 그녀가 히위 족속²과 결혼하자 그녀의 오라비들은 분노했다. 그녀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재판관 직분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 히위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시키는 것만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창세기 34:1-24). 더 나중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유일한 여성의 이름에서 이 혈통을 추적할 수 있다. 그녀는 세라(창세기 46:17)로, 이는 ‘부족의 여성 지도자’인 사라의 한 형태다. 디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레아의 여종 실바의 후손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레아가 특별히 기뻐했던 아셀이 그의 딸 세라를 통해 다음 씨족의 수장을 내었다.”

62 여성의 이 초기 존엄의 흔적은 성경 역사의 전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왕과 나란히 권력을 행사하는 “왕의 어머니(태후)”에게서 그렇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주전 600년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13:18에서 언급됩니다(여기서 이 단어는 흔히 “왕후”로 잘못 번역됩니다).

히브리어보다 앞서 아카드어와 수메르어가 있었습니다. 세이스(Sayce) 교수는 옛 수메르 찬가를 셈어로 옮긴 번역자들이 “여자와 남자”를 “남자와 여자”로 바꾸고, 남자들에게 우위를 주기 위해 그 밖에도 그런 변경을 끌어들이었다고 전합니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라비아, 페니키아, 이집트 – 이 아주 오래된 문명들은 모두 모권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램지 경(Sir Wm. Ramsay)도 소아시아에 대해 같은 말을 합니다. 모계 혈통은 초기 그리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파르타 여성은 자기 존엄을 마지막으로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전 450년경에도 헤로도토스(Herodotus)는 리키아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이웃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는 자기가 아무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자기 어머니의 조상들을 열거할 것이다.” 예전에는 이것이 아버지에게 아내가 여럿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형제”를 뜻하는 헬라어 (adelphos) 자체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한 친족 관계를 가리킵니다.

63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 멀리 떠나 버려서, 오늘날 영국 법에 따르면 어머니는 부모가 아닙니다. 에드워드 6세가 다스리던 때, 민사 법원과 교회 법원은 함께 서퍽 공작부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친족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이혼에 엄격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에 관한 주 예수의 규정을 읽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는 결론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이 규정의 전제를 무시하는 한, 그 결론[이혼 금지, 독일어 역자 주]을 결코 실효성 있게 관철하지 못할 것입니다.

64 우리의 히브리어 문법서와 사전은 민족을 가리키는 거의 모든 집합 명사와 도시와 공동체의 이름이 **여성형**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시대의 남성들이 그리스도께서 먹으신 것과 같은 군중을 묘사하려고 여성형 단어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그분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 사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스테반과 바울은 여러 경우에 군중을 **"남자들, 형제들이여"**라고 부르며 여자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거의 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할 때에는 군중 가운데 그의 성별만 언급됩니다. 그러나 혈통을 여자를 통해 계산하던 시대에는, 한 핏줄의 민족이나 공동체를 말할 때 민족과 도시와 공동체와 군중이 여성형 명칭을 얻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 등을 가리키는 이 집합 명사들이 여성형이었던 것은, 그런 곳들이 **여자들이 소유한 집들의 무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여자들이 거기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25, 여호수아 15:45 등에서 도시를 가리키는 말은 **"딸들"**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사야 12:6의 **"시온의 주민"**은 원문에서 **"시온의 여주민"**이며, 비슷한 경우가 구약에 매우 많습니다.

제9과 – 하와의 선택과 아담의 선택

65 A. T. 피어슨(A. T. Pierson) 박사는 **"영적 성경 비평"**에 관한 유익한 연속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의 영역에서 사람은 어떤 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영의 영역에서 사람은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참임을 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오늘 우리 과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비록 그것이 여러분이 전에 받은 가르침과 여러분이 어쩌면 물려받았을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66 이 과들의 맥락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 남자냐 여자냐"**를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바람을 합당하지 않은 질문으로 단번에 물리칩시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우리는 여성의 운명에 관심이 있으며,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운명은 에덴동산에서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7 창세기 2:17-18을 읽어 보십시오. 남녀가 나뉘기 직전, 아담이 책임질 만큼 성숙하여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18절이 보여 주듯이 하와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은 2인칭 단수로 주어졌습니다. 이 **"나무"**가 정확히 무엇이었는데는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말이 사무엘하 19:35, 욥기 2:10, 이사야 7:15-16, 예레미야 42:6 등의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상 **"고통과 쾌락"**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법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는, 한편으로는 **"고통"**과 **"쾌락"**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고통"**을, 심지어 유익한 고통까지도 피하려는 강한 유혹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의 관심을 단지 **"고통과 쾌락"**보다 더 높은 동기와 행동 원리로 이끌고자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금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짝지어 주신 사건 바로 앞에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녀 관계에서 책임의 고통을 피하는 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쇠퇴를 뜻하고 결국에는 인류의 쇠퇴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가 되는 성에 고난과 과중한 짐을 반드시 안겨 줄 수밖에 없습니다.

68 하와는 이 금지가 이미 선포된 뒤에야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뒤에 전능자에게서 직접 그것을 들었는지, 아니면 아담을 통해서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사탄이 그녀를 꾀어 그 계명을 어기게 했을 때 그녀는 아마 아담을 통해서만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지시를 되풀이할 때 말을 꾸몄고, 법의 문구를 한 점에서는 더 강하게, 다른 점에서는 더 약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직접 들은 보고가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결국 두 사람 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오셔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두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다음 하나님은 여자에게 물으셨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굵은 글씨로 쓴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69 제 생각에는 이 두 대답을 서로 맞대어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 안에서 뒤에 이어지는 일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두 사람 모두 먹게 만든 **직접적인** 영향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둘이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더 말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와를 통한 그의 타락에는 첫 원인, 곧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처럼 사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첫 원인에 대해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첫 원인이라고 비난합니다 – 그에게 여자를 곁에 두셨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사탄이 그 대화 자리에 있었거나 가까이 있었으므로, 굳이 첫 원인을 말해야 했다면 그를 놓칠 수 없었거나 고의로만 놓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 곧 은연중에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탓한 것을 기뻐했을 것이고, 또 아담이 유혹자인 자기를 비난에서 감싸 준 태도도 그만큼 기뻐했을 것입니다. 욥이 “내가 만일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어 내 죄악을 내 품에 숨겼다면 ...”(욥기 31:33)이라고 탄식할 때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아담의 이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랑게(Lange)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36항 참조). “아담은 이미 존재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동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다.” 아담이 들어올 수 있었던 사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이것이 아닐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자를 곁에 두셨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하나님 자신이 타락의 첫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70 운명은 무서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평생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지 않는 한 – 다음 세대들에 걸쳐 그 후손의 타고난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의 교훈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에서의 삶이 야곱의 삶보다 더 존경할 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길의 갈림길에 섰을 때 에서는 장자권을 대가로 욕신의 만족을 택했습니다(창세기 25:29-34). 훗날 뒤에 야곱도 두 길의 갈림길에 이르렀고, 혼자서 아무 준비 없이 형의 살인적인 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씨름했으며(창세기 32:24-32), 그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각각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셨고, 그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정을 근거로 –

“선택”을 하시려는 참입니다. 그것은 훗날 역사에서 그분이 야곱을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하셨을 때와 똑같습니다.

71 아담은 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탄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정체를 드러냈고, 그렇게 해서 자신과 사탄 사이에 적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일은 하와의 더 나은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사탄에게서 더 멀리 끌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3:15). 그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갈라서기로 결정했으니, 내가 그 틈을 더 넓히겠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약속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적지 않은 해석자들이 거기서, 사람과 하등 동물인 뱀 사이에는 언제나 자연적인 적대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2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사탄과 여자 사이에 적대 관계를 두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음 절(3:16)에서 예언되는 일련의 악을 상당 부분 설명해 줍니다. 물론 전통적인 견해로는 그것이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죄를 세상에 들여온 결과라고 봅니다. 사탄의 적대감이 여자가 겪는 고난의 원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의 과들에서 더 밝히겠습니다.

73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 하나님은 여자에 관해 사탄에게 하신 이 말씀에 이것을 덧붙이십니다. 오늘날 흔히 강조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아버지 되심”과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는 부분적으로는 참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권위로 존중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 – 도덕적, 영적 범법자들 – 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요한복음 6:70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대인들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요 8:41-44). 사랑의 사도 요한조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요일 3:7-8, 10).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의 거듭나지 않은 “사생자”(히 12:8)를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74 “그[여자의 후손]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옛 번역들에는 “~하라”(soll)라는 말이 쓰였지만, 뜻을 분명히 하려면 두 곳 모두 “~할 것이다”(wird)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형이지 명령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실 뿐입니다. 이 예언은 특히 사탄의 큰 원수,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에게도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주제는 다음 과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제11과 – 하와와 그녀를 비방하는 자들

82 이 책의 분량이 허락한다면, 저는 페인스미스(Payne-Smith) 참사회원의 주석에 덧붙여, 가인이 오실 그분, 곧 메시아라는 하와의 믿음을 다룬 다른 주석가들의 흥미로운 글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대학교의 페터 랑게(Peter Lange) 박사와, 그의 책을 편집하고 번역한 테일러 루이스(Taylor Lewis) 박사의 주석이 귀중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씁니다. “구원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사람에게 그 표현을 적용한 하와의 잘못이, 언약의 하나님을 그토록 초월적으로 다른 존재로 계시받은 우리에게 본문 해석을 좌우할 만큼 큰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와의 지식의 한계와, 어쩌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점은 오히려 그녀의 소망의 강렬함과 그녀가 한 말의 주관적 진실성을 더욱 밝히 드러낸다. 만일 그때 전해진 그녀의 말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었다면, 합리주의자들은 틀림없이 이를 그녀가 그런 예언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증거로 내세웠을 것이고, 따라서 창세기 3:15와 창세기 4:1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나 서로 모순되는 서로 다른 저자들이 썼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83 아담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였다고 말합니다. 델리치(Delitzsch)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은 실제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 말한다. 그를 위협하는 죽음 앞에서, 아담에게 여자는 인류의 존속과 승리 둘 다를 보증하는 존재다.” 모든 신자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측면에 대해 먼로 깁슨(Monroe Gibson) 박사는 “그녀의 후손은 누구인가?”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상적으로 읽는 많은 사람은 그녀의 후손이 온 인류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온 인류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 전체를 포함한다면, 뱀의 후손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자의 후손’은 온 인류를 뜻할 수 없고,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자의 후손’인 사람들, 곧 선의 편, 하나님과 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지 않은가? 반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뱀의 후손, 곧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3:20]를 읽을 때, 대부분의 독자는 그녀가 모든 사람의 어머니였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가 왜 그토록 뻔한 사실을 말하는 이름을 그녀에게 지어 주었겠는가? 반대로 ‘산 자’를 문자적 의미뿐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사람들로 이해한다면, 모든 암시가 얼마나 아름답게 맞아떨어지는가! ‘여자의 후손’, ‘산 자의 어머니’, ‘아담의 계보’. 엄밀히 말해 히브리어에는 현재형이 없고 과거와 미래만 있다. 그러므로 미래형이 쓰이면 그것은 미래로 이어지는 현재를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일 뿐 아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 관계를 두고 있다는 뜻도 된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 그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개인의 원형이자 대표자다”(The Ages before Moses, 122쪽).

84 이제 제가 고를 수 있었던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네 곳을 비교해 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창세기 22:16-18).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삭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창세기 26:4-5). 야곱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창세기 28:14).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뒤에 네 씨 ... 를 세우고 ...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역대상 17:11-12). 그리고 갈라디아서 3:29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인류에게 내려올 이 복의 물줄기의 일부로 언급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특별한 영예였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의 근원이 (인간 쪽에서는) 하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 대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높이는 것만큼 하와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 영예는 그들의 경우와 다른 이유로 그녀에게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곧 그녀에게서 발견된 탁월함 때문입니다.

85 다음 과에서 저는 신약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성품에 대한 이 비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꽤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자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고발한 가장 이른 분명한 예는 이교 그리스의 판도라 신화입니다. 주전 800년경에 살았던 헤시오도스(Hesiod)에 따르면, 유피테르는 프로메테우스(그 이름은 “앞선 생각”을 뜻합니다)가 하늘에서 불을 훔친 것에 분노하여, 복수로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미네르바가 그녀를 온갖 선물로 꾸몄고, 그녀는 판도라(“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뜻)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메르큐리우스는 그녀에게 속이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에피메테우스(“나중 생각”)에게 보내졌고,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없는 사이에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를 맞아들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받아들여지자 판도라는 한 그릇을 열어, 속이는 소망만 남기고 인류의 모든 악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이 신화에는 여러 변형이 있지만, 모두 한 가지 관점을 가르칩니다. 곧 여자가 인간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86 신구약 중간기, 곧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기는 유대 역사에서 “혼합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가르침과 유대인의 관습을 그리스 이교와 조화시키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패러(Farrar) 부주교³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은 그리스 도시들의 띠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이 이방 주민들과 자유롭게 섞여 살았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시리아와 이집트의 그리스 왕들과 긴밀히 연결된, 부유하고 강력한 한 당파가 자라났다. 그리스의 삶과 문학의 매력에 사로잡힌 그들은 헬레니즘의 이상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삶과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구별 표지들을 지워 버리려 했다. 이 반쯤 불신앙적인 시대를 ‘혼합의 날들’이라고 불렀다.”

87 그러므로 이 시기에 판도라 전설과 창세기의 하와 이야기를 서로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와를 악의 근원으로 언급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예는 Ecclesiasticus, 곧 집회서(시락서)로 알려진 외경에서 발견됩니다.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팔레스타인의 이 작품은 원래 아마 주전 250년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나 일찍이 이집트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다음과 같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죄는 한 여자에게서 시작되었고, 그 여자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25:24). 테넌트(Tennant)는 “집회서는 타락에 관한 탈무드 교리의 선구자”였다고 말합니다.⁴ 이 탈무드 교리가 하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곧 일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와를 악의 근원으로 언급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예는 Ecclesiasticus, 곧 집회서(시락서)로 알려진 외경에서 발견됩니다.”

후대의 유대 저자들은 하와의 잘못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성경을 그리스 이교의 가르침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의 헬라어 역본이 완성된 뒤(주전 285년에 시작), 기독교 신학에 해가 되게도, “외경”이라 불리는 이 유대인의 영감 받지 않은 문서들이 – 모두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 그 역본에 포함되었고, 교회는 히브리어 성경을 제쳐 두고 이 역본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교부가 외경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용했고, 모두가 그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화 속 판도라의 성품이 하와에게 덧씌워지는 일이 쉽게 일어납니다. 하와의 성품에 대한 어떤 언설도 “혼합의 날들”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88 주후 177년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나이우스(Irenaeus)는 벤 시라(Ben Sirach)와 다른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에서 하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과 온 인류에게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몇 해 뒤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는 특히 가혹합니다. 그는 하와의 죄를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자신이 하와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았는가? 그대의 성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선고가 이 세상에서 아직 살아 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책도 아직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 **마귀에게 들어올 길을 열어 준 자가 바로 그대다.** 그대가 그 나무의 봉인을 깨뜨렸고, 그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으며, 마귀가 감히 다가가지 못한 그 사람을 꺾어낸 것도 그대다. 그대는 그토록 쉽게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대의 죄책 때문에, 곧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으셔야 했다.” 그러나 여자가 없었다면,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려고 혹은 남자들에게 설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89 오늘날의 많은 신학적 견해에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Lippincott's Biographical Dictionary의 간결한 표현을 빌리면 “그는 당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얻었다”기 때문입니다. 그의 저작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이런 관점(영구적인 “죄책”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의 공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성경 구절(창세기 3:16)이 탈무드와 테르툴리아누스의 가르침에 맞추어 여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로 해석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제46과 – 바울의 논리를 위한 불필요한 변명들

346 바울이 큰 위기에 걸맞은 조언을 하고 있으며 – 여자의 영구적인 침묵과 복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견해 대신, 우리에게서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주석가들에 따르면 그것은 결국 이런 말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싸우는 데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인 사도가,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바로 그 학파에 매우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궤변을 섞어 넣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는 한, 바울이 여기서 근거 없는 유대식 궤변을 마음껏 써서 논증한다는 설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칼뱅(Calvin)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논증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근거로 드는 이유, 곧 여자가 창조

질서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복종을 위한 아주 강한 논증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레 요한은 시간 순서로는 그리스도보다 앞섰지만 지위로는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칼뱅은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남자에게는 그보다 먼저 지음 받은 어머니가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더 낮은 존재로 여겨진다.” 또는 바울이 본래의 창조 행위를 가리켰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는 남자보다 먼저 지음 받았다 – 심지어 신학자들보다도 먼저 – 그러니 남자는 소에게 복종해야 한다.” 저로서는 바울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믿기보다는, 차라리 주석가가 합당하지 않은 궤변을 썼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347 바울이 랍비의 가르침을 강요한다는 견해를 따르면, 칼리쉬(Kalisch)가 쓴 대로 “신약은 ... 구약보다 더 엄격하다. 신약은 여자에게 ‘조용히 모든 복종 가운데 배우되,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려 하지 말고 조용하라’고 명하지만, 구약에서는 미리암, 드보라, 홀다처럼 여자가 가장 높은 가르침의 직분인 선지자 직분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복음” – “좋은 소식” – 이라는 말이 구약의 율법조차 강요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여자들에게 억압을 선포한다고 믿기보다는, 차라리 주석가가 틀렸다고 믿겠습니다.

348 때로 주석가는 바울의 **지시**에는 만족하지만 그의 **논증 방식**이 불편해서 바울을 위해 변명하려고 합니다. 레이놀즈(Reynolds) 교수는 13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여성의 주제넘은 주장을 나무라는 데 쓰일 때, 이 논증은 우리 귀에 억지스럽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거의 모든 철학적 견해의 구체적 표현을 성경에서 찾고 또 발견하는 것이 흔한 방법이었다.” 이 말은 매우 지혜롭게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바울의 글들을 있게 하셨다고 믿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자의 침묵과 복종의 근거를 대기 위해 랍비들의 허튼소리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에게 덧씌워진 것과 같은 논증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면, 합리적인 근거의 부족이 정말 치명적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349 힘 있는 논리로 로마서를 쓴 사도, 히브리서의 명료한 논증을 직접 썼거나 그것을 쓴 사람의 스승이었던 사도는, 여자들의 입을 막을 구실을 찾으려고 그 자신이 경멸하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부른 것에 – 그리고 디모데에게 멀리하라고 경고한 것에 – 기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여자들의 입을 막고자 했다면 그에 대한 **정직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밝힐 합당한 말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궤변을 지탱하려 하여 바울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성경의 가치를 의심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가, 혹은 성경 전반이 변명을 필요로 한다는 데 한순간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석가들이 이기적이고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버릴 준비가 되지만 하면, 바울의 말은 완전히 분명해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의미에서 설득력 있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논증하지 않았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하와가 아담보다 죄가 더 크다고 논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불리한 상황에서 교회와 여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들이 일시적으로 “조용히” 있으라고 권했을 뿐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정절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자들의 입을 막고자 했다면 그에 대한 정직한 이유를 댔을 것이고, 그 이유를 밝힐 합당한 말도 찾았을 것입니다.”

350 그런데도 램지(Ramsay) 교수는 바울이 모든 여자를 모든 시대에 걸쳐 침묵시키고 복종시키려 했다는 결론을 고집하며, (*The Expositor*, 1909에서) 이 대목에서 바울이 쓴 말을 이렇게 부릅니다.

“... 유대인들이 흔히 성경에서 논거를 끌어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견해를 뒷받침하려고 성경의 말을 비틀고 괴롭히던 방식을 보여 주는 기묘한 예다. 바울은 직접적이고 틀림없는 직관으로 분명히 보는 진리를 표현하는 곳에서도, 때로 구약에서 논거를 끌어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꾸며 낸 것 같고 논증으로서는 거의 가치가 없어 보인다. 유대인의 사고는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논증했고, 그 논증 방식 때문에 우리를 자주 당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견해의 진리성을 논증의 타당성과 같은 것으로 여기거나, 논증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으니 그 견해도 참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행동에서 나온 논증을, 우리의 사고에 와닿지 않고 우리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제쳐 둘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는 한에서도, 현대 독자들의 판단으로는 바울의 주장을 강화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그 논증과 완전히 무관하다.”

351 “현대 독자들의 판단으로는” 여자의 복종과 침묵이라는 주장이 바울에게 **덧씌워진** 논증으로 강화되지 않았다니 저는 무척 기쁩니다. 이제 주석가가 머지않아, 그렇게 약한 논증은 결코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왜곡한 자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비튼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논증을 비틀어 성경과의 조화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자들이 일단 그 말 속의 왜곡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램지 교수는 바울의 논증은 나쁘지만, 그 나쁜 논증에서 나온 결론은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결함 있는 소유권 증서로 얻은 재산과 같다는 것이 일단 인정되면, 남자들은 자기의 죄책 있는 양심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을 자기편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두 가지 가능성 – (1) 바울이 전혀 다른 것을 위해 논증했다는 데 동의하거나, (2) 바울이 (여자의 침묵과 복종을 위해) 성경을 비틀어 정직하지 못하게 논증했다고 주장하는 것 – 가운데, 뒤의 견해를 거부하고 앞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울을 훨씬 더 존중하는 일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경외하는 일입니다.

352 저는 여자들에 관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에서, 그가 랍비의 궤변을 이어 간다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관되고 합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램지 교수는, 다른 비슷한 견해들은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랍비주의에서 넘겨받은) 교리를 뒷받침하려고 바울이 “꾸며 낸, 기묘한 논증 방식”을 썼다고 탓합니다. 이 디모데서 본문을 이용해 그런 교리를 관철하려고 꾸며 낸, 기묘한 논증 방식이 쓰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것이 바울의 탓이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저는 그 책임이 초대 교회 안의 “유대주의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성 주석가들은 (어쩌면 무의식적인) 사사로운 이유로, 이미 만들어져 있던 “유대주의자들”의 꾸며 낸, 기묘한 논증을 넘겨받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사역 기간 내내 날마다 교회에 끼치는 그들의 해로운 영향과 싸웠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사도행전 20:29). 그는 여러 편지에서 수없이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뒤에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에 있는

말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15-16).

353 바울은 고린도후서 4:1-2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바울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던 “꾸며 낸, 기묘한 논증”에 빠졌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바울이 (램지 교수의 말을 빌리면) “성경의 말을 비틀고 괴롭혔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글에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 거짓의 영에게 자리를 내주셨으며,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 말을 썼을 때 정직하지 않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에 대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제47과 – 남편이 머리 됨에 관한 맺음말

354 남편이 머리라는 것이 남자의 지배를 뜻하지 않는다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을 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을 받지 않습니까? “복종”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예측된 섬김이 아니라 화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지배하거나 불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을 깨달을 때까지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쓰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베드로전서 2:18-23을 읽어 보십시오. 3:1로 넘어가는 대목, 특히 “이와 같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요구되는 “복종”은 고집 세고 믿지 않는 남편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불의를 당하기 쉬운 아내에게는 “복종”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일련의 의무를 권하고, 남편에게는 다른 일련의 의무를 권합니다. 남편이 억압으로 기울기 쉬운 쪽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355 그러나 주석가는 바울이 “복종”이라는 말을 쓰는 의도를 잘못 해석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어머니들이 딸들을 결혼 시장에 내놓기 위해 그 발을 동여매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관습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인도적인 영향 앞에서 물러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집안 남자들의 지지를 받아 딸들의 발을 동여매기를 거부하고, 자기 발의 붕대도 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이 자유롭다는 것은 발을 한 번도 동여매지 않은 딸에게는 한 가지 일이고, 여러 해 동안 발을 동여맨 어머니에게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 까닭은, 발을 그토록 약하게 하고 불구로 만든 바로 그 붕대가 세월이 흐르면서 약해진 발을 떠받치는 필수적인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의사는 중국인 어머니의 발을 풀어 줄 때 옛 붕대를 벗기고 그런 다음 새 붕대를 감아야 합니다 – 이번에는 발가락 하나하나를 각각의 부목에 묶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발이 모든 버팀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356 뒤의 것도 묶는 일이지는 하지만, 원래의 전족과는 정반대의 의도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한 것이고, 옛 일은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본질상 발을 한 번도 동여매지 않은 소녀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완전한 자유를 목표로 하는 이 일시적인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의사가 전족을 유익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정하거나 진실하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의미로 바울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밝힌 목표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대해 그가 다른 곳에서 분명히 말한 것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기 말을 지키려고 붙여 둔 경고들을 업신여기고 그 뜻을 비뚤니다.

357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없으니” 같은 말씀은 그들의 이해로는 별 권위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이 그녀의 “머리”(“버팀목”, 282항 참조)라는 것을 두 번 상기시켰다는 이유로, 이 해석자들은 바울이 굽은 등에서 내려 주려 했던 억압의 짐을 여자들에게 영구히 다시 지우려 합니다. 사도의 의도를 이렇게 잘못 전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성경과 바울을 무례하게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울이 뜻한 바를 왜곡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늙은 독신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말합니다. 또 그는 랍비 교육의 독기 아래에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말하며, 그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달리 전하는 것은 모두 무례한 일입니다.

358 이교 정부 아래에서, 그리고 여성에게 불공정한 민법 아래에서 겪는 어려움을 아는 사도는 이제 먼저, 교회 안에서는 억압의 봉대를 풀어야 하지만 결혼의 끈은 조심스럽게 지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아내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비유를 이어 가자면, 부러지고 깨어진 아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별 부목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의 혁명적인 윤리가 머지않아 나머지 모든 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의 주님처럼 바울도 자기 복음을 통해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왔습니다 – 포로 된 자에게 포로 생활을 선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 바울이 품은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이며, 그는 이것을 여러 면에서 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일단 이 목표에 이르면, 그 방법은 낡고 무의미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특별한 지시는 맞지 않습니다 – 그 방법은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억압은 사라졌고, 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359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을 살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먼저 괄호 안의 말이 원문에는 없다는 데 주목하십시오. 아내들에게는 21절에서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운 것과 같은 의무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내의 의무를 무한정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 골로새서 3:18과 같은데, 거기서 우리는 같은 의무 목록을 발견합니다. “...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울에게 복종은 “마땅한” 것의 한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나쁜 조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베드로전서 5:5) 모든 신자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가르친 이 사도는 베드로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갈라디아서 2:3-5, 11).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성경이 남자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자 그리스도인에게도 결코 지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성경이 남자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자 그리스도인에게도 결코 지운 적이 없습니다.”

360 시인 존 밀턴(John Milton)은 여자에 대해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내세웁니다.

"To whom thus Eve, with perfect beauty adorn'd:

'My author and disposer, what thou bidd'st

Unargued I obey: so God ordains;

God is thy law, thou mine; to know no more

Is woman's happiest knowledge, and her praise."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단장한 하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의 창조자요 주재자시여, 당신이 명하시는 것에

따지지 않고 저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 당신은 나의 법. 그 이상 알지 않는 것이

여자의 가장 행복한 삶이요 그녀의 칭찬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남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데살로니가후서 2:4)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그것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곧 우상 숭배를 가르칩니다.

361 사도가 남편들에게 남편으로서 특별히 "복종"을 지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더 중요한 의무를 마음에 새겨 주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23절에서 그는 남편에게, 그의 주님처럼 아내를 위해 "몸의 구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녀가 얼마나 자유롭고 흠 없기를 바랍니다! 25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녀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26절은 그 자신의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육신의 본성으로 아내의 몸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여, 마침내 그녀를 "티나 주름 잡힌 것"(27절)이 없이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모든 도덕적 손상에서 벗어난 채로 말입니다. 28절은 그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곧 그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반대의 행동 - 정욕으로 억누르는 것 - 은 그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녀가 아니라) 그가 다른 모든 사람을 떠나 그녀에게만 합해야 합니다(45-64항 참조).

362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여성의 유일한 세기는 사도 시대와 그 뒤로 조금 더 이어진 시기였습니다. 램지(Ramsay) 교수는 그의 귀중한 책 *The Church in the Roman Empire*에서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의 보편적이고 가톨릭적인 유형은 여성의 중요성과 공적 사역을 싫어하는 쪽으로 굳어졌다. 싫어함은 혐오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싫어함은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2세기 중엽 이전에 혐오로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혐오가 커지면서, 여자의 침묵과 복종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기울여졌으리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는 성경, 특히 바울의 말을 비틀고 왜곡하여 그런 것을 가르치게 만드는 방법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마디 말로 그 "꾸며 낸, 기묘한 논증"의 역사를 봅니다. 그것은 바울이 내놓은 논증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결론을 끌어내게 해 줍니다. 그러나 그 논증들을 바르게 읽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해석한다면, 사도 바울과 “여성 문제”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여성의 유일한 세기는 사도 시대와 그 뒤로 조금 더 이어진 시기였습니다.”

제66과 – 그리스도인 가정의 설립

519 흔히 쓰는 구약 연대기(어셔(Usher)의 연대기)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주전 1996년에 태어났고, 사라는 그보다 열 살 아래였습니다(창세기 17:17). 그러므로 이 믿음의 가정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것과 거의 같은 만큼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습니다. 같은 연대기는 승리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하와의 시대를 주전 4004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는 그 기념할 만한 약속과 여자의 후손의 탄생 사이의 거의 중간 지점에 놓입니다.

520 하와의 시대부터 아브라함(처음에는 **아브람**이라 불렸습니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의 씨를 오실 메시아의 조상 계보에 참여하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사이에 인류는, 적어도 세계의 그 지역에서는, 모계 혈통으로 자손을 계산하는 방식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초기 여성의 존엄을 특징짓던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오실 메시아의 자취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리라는 일반적인 말씀에 더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속하실 민족에 대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민족이 그분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려 하셨습니다.

52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우상을 섬기는 친족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창세기 12:1-5; 여호수아 24:2-3). 가나안에 이르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교육을 시작하셔서, 그들의 소망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시고 그들의 미래 자손과 연결하셨습니다. 한때 이교도였던 가정을 모든 시대에 걸쳐 참된 믿음의 모든 가정의 머리로 준비시키신 이 과정을 우리는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은 첫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들은 (하와가 그랬듯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522 우리는 미국의 대도시에 그토록 많고 오늘날 바다 양쪽에서 점점 더 자주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건물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자주 보았습니다. 그 구조는 작은 건물들과 전혀 다릅니다. 먼저 깊고 튼튼한 기초를 놓을 자리를 마련하려고 훨씬 더 많은 흙을 파냅니다. 그다음 모든 들보와 서까래를 쇠로 만들고, 다리를 놓을 때처럼 단단히 리벳으로 박습니다. 하나님은 첫 믿음의 가정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본보기로 세우고 지으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깊이 파시고, 큰 주춧돌을 단단히 놓으시고, 그 건물의 모든 들보를 단단히 리벳으로 이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살펴봅시다.

52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사라에게는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데 백 년, 사라를 어머니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는 데 구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경받는 가문은

한날 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원하실 때, 그분은 자손을 낳는 일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십니다. 모든 것은 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의 큰 가문은 세상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문은 어차피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덕과 범죄와 전쟁이 곧 그들을 멸망의 문턱으로 몰아갑니다.

524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창세기 16:1). 한편으로는 “땅의 티끌 같게”(창세기 13:16) 그토록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양이 바라는 목표일 때에도 하나님께는 질이 전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 사라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감각적 기쁨이 앞섰을 것입니다(창세기 12:11-14). 그 뒤에는 이교도 아브람으로 하여금 이복누이와 결혼하게 한 욕신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에서 영감을 받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섞였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 이름을 길이 남길 상속자를 바랐습니다(창세기 13:2; 15:3).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갈망을 가나안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로, 곧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히브리서 11:10)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욕신이 모든 감각적 욕망에 대해 “죽은 것 같은” 뒤에(로마서 4:19)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 그의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세상을 축복하려는 거룩한 소원에서 말입니다(창세기 12:3; 22:18). 이 거룩한 소원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했습니다.

“양이 바라는 목표일 때에도 하나님께는 질이 전부입니다.”

525 이 경우는 주목할 만하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에도 욕신의 욕망이 더 높은 갈망에 밀려날 때까지 그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창세기 25:21) –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의 경우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른 아내 라헬도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자손의 탄생에는 감각적 욕망이나 인간적 야망보다 더 큰 무엇이 담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사”(창세기 30:22), 그녀는 성품에 흠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곧 온 가족을 굶어 죽는 데서 구한 뛰어난 인물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의 우두머리였고, 나머지 여덟 지파가 그 둘을 중심으로 모여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달리 구약 역사 후기의 선지자들에게서 자주 “에브라임”이라고 불립니다(예레미야 31:18 등).

“장래가 촉망되는 자손의 탄생에는 감각적 욕망이나 인간적 야망보다 더 큰 무엇이 담겨야 했습니다.”

52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원하셨을 때에도 다시 그러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침내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태어날 아이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이 일을 두고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습니다 – 특히 아버지 마노아가 태어날 아이의 양육에 관해 더 구체적인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사사기 13:8). 그다음 우리는 선지자 학교의 설립자인 참으로

아름다운 인물 사무엘에 이릅니다. 그는 욱신의 욕망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왔습니다(사무엘상 1:20). 하나님은 (이 경우에도) 그녀의 소원이 거룩해질 때까지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뛰어난 자녀를 낳은 다른 많은 어머니도 이런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527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 엘리사벳의 경험에서 같은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할 선구자를 준비하시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택하시고, 곧바로 욱신의 아이를 얻을 가능성을 막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거룩하고 욕욕 없는 소원에서 태어난 아이를 낳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모든 욱신의 욕망이 그칠 때까지. 그런 다음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알려셨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누가복음 1:13-15). 이렇게 큰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업신여길지라도 말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먼저 가두고 그다음 목 베어 업신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큰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업신여길지라도 말입니다.”

덧붙이는 말

거룩한 자손의 부모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현대의 “산아 제한” 기구들이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는 매우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단계의 욕구가 서로 겹으로 드러나려고 다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손을 위해서는 욱신의 욕구가 지나가고, 기도와 간구 속에 영적으로 표현되는 자손에 대한 갈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정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이 만든 현대의 기구들은 자손에 대한 갈망의 표현을 줄이고 무책임한 욱신의 욕구가 마음껏 흐르게 합니다. 그런 결합에서 난 자손은, 결국 태어나는 것이 허락된다면, 참으로 “비천한 출생”일 것입니다.

제100과 – 장자권인가, 팔죽 한 그릇인가?

829 탈무드의 “하와의 열 가지 저주”(106항 참조)에서 비롯된 거짓 가르침, 곧 하나님께서 하와의 죄 때문에 여자들을 일정한 때에 고통으로 벌하신다는 가르침은,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성에도 합당하지 않은 악하고 잔인한 미신입니다. 창세기 3:16을 비틀어 “너의 욕망은 네 남편을 향하라”(Luther, 독일어 성경 번역본)라고 잘못 읽으면, 이 구절은 결혼 관계 안에서 남성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욕욕을 덮어 주는 가리개가 됩니다. 게다가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공의를 일그러뜨린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와 똑같이 하와의 자손이 아닙니까? 거기서 형벌은 죄가 아니라 성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별에 대해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830 더 나아가, 하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영구히 “잠잠해야” 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며, 결코 감히 가르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은 속죄 제물의 교리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 물론 하와의 죄까지 속하였다는 영광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습니다. 그것은 개신교의 정신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루터(Luther)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해아릴 수 없는 은혜로 값없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831 그런데도 놀랍게도 루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을 위한 “값없는 은혜”라는 생각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산욕 중의 죽음은 고귀한 일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가운데 죽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자들이 아이를 배고 낳다가 지치고 마침내 죽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 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아이를 배다가 죽게 두라. 그들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루터는 “양심의 자유”를 크게 중시했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하거나 끝낼 수 없다. 남자가 있는 곳에 여자도 있어야 하며, 마치 주인 앞에서처럼 그 앞에 몸을 굽혀야 한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순종할 것이다.” 그는 여자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위한 자리를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832 루터는 성경 해석자들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표현이 다른 몇몇 사람보다 조금 더 노골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자들은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값없는 은혜”를 들었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것으로 여겨지는 가르침과는 반대로, 최근 몇 해 동안 여자들은 교회의 공적 모임에 참여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모임이 지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기 관행으로 무시하는 교리를 지지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이제 교회가 관행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석에서 이 가르침들을 지우든지 하여, 어떤 식으로든 둘을 서로 일치시켜야 할 때가 아닙니까? 자기들의 관행, 곧 공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흔히 성경의 가르침으로 여겨지는 것 사이에 이런 일치를 이루어 낼 의무는 무엇보다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833 그러나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가 속한 성 전체에 멸망의 손을 얹으셨다는 생각을 우리의 믿음과 가르침에서 몰아낸다면 –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모든 여자에게 속한다는 가르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16의 슬픈 예언은 여자들이 **육체적으로 물려받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넘치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15의 영광스러운 예언도 넘치도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 유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입니다.

834 예언은 숙명이 아닙니다. 어떤 여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이 예언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운명으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뜻과 상관없이 그냥 저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든 다가올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다만 **어떤 여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이상을 붙잡으리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상이 제 앞에 놓여 있었는데도 제가 그것을 업신여겼으므로 저의 낮아짐과 마지막 형벌은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835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에서 에서의 죄보다 더 사람들의 경멸을 받도록 드러난 죄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장자권이 약속되어 있었고, 그 장자권과 함께 아버지의 예언적 축복도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래의 일이었고 오랫동안 늦어질 수도 있었던 반면, 그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혈통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오지 않으셨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 뒤로 약 열일곱 세기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836 신약은 그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원하였으나 버린 바가 되어”(히브리서 12:16-17). 장자권의 상속자인 그에게 내려질 아버지의 축복은 그의 이 세상 복리에 크게 이바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팔아 버린 뒤에는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저질러졌습니다. 더 이상 바꿀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팔죽 한 그릇을 얻었지만, 아버지 재산의 두 몫과 집안의 영예로운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선언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에서가 오직 이 세상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837 에서의 행동과, 같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쓴 모세의 행동보다 더 큰 대조를 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보화는 그가 누리도록 그의 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히브리서 11:24-26).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운, 왕의 딸의 아들인 이 귀한 모세!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들 편에 섭니다! 이 무슨 광신자입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천오백 년 전에 그 그리스도를 위해 온 세상을 희생합니다!

838 그러면 우리 시대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전망은 너무 멀어서 내게는 매력이 없다. 큰 헌신과 많은 자기 부인으로 내 시대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아무 차이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나는 공개적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기도하는 데 관심이 없다. 나는 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데 그분은 늘 오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웃음거리다. 나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여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전망은 너무 멀어서 내게는 매력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839 우리는 어느 무리에 속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일에서 망설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큰 약속과 예언 –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약속과 예언 – 이 우리 여자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관점에서 보아 최선의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에서임을 드러내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앞에 이 도전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자권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캐서린 C. 부시넬(Katharine C. Bushnell)은 여성을 다루는 (거의) 모든 성경 구절을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한 언어학자로서 그녀는 본문을 원어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연구하며, 그 과정에서 성경 번역자들이 때로 가려 버린 통찰에

이름입니다. 이 책은 여성을 위한 사회 개혁에 평생 힘쓴 부시넬의 노력에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녀는 여성의 지위와 성경에 대한 오해 사이의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연구자들은 1921년 첫 출간 이후 그녀의 선구적인 저작에 기대어 왔으며, 이 책을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질문을 성경 전체에서 다룬 가장 좋은 접근 가운데 하나로 여깁니다.

깨어나라, 하와여 – 곧 하늘이 너에게 임하리라!

캐서린 C. 부시넬(Katharine C. Bushnell, 1855-1946)은 용기 있고 재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구절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의사, 선교사, 개혁가, 저술가, 강연자였으며, 일곱 언어를 구사하고 고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탁월하고 독창적인 학자였습니다. 부시넬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긴 것을 하기 위해 의료계를 떠났습니다. 곧 19세기 여성 운동의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기독교 여성 금주 연합, WCTU)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아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형편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지위는 부시넬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번역이 여성의 사회적, 영적 예속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896년 그녀는 WCTU를 떠나, 남은 생애를 글을 쓰는 일과, 여성의 온전한 평등에 관한 하나님의 처음부터 변함없는 뜻, 그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100과로 된 읽기 및 공부용 책 + 메모 공간

ISBN 978-3-94447-225-6 (RVB)

ISBN 978-3-86269-206-4 (VKW)

주

1.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는 말이 길기 때문에, 이하 이 과들에서는 앞의 것을 “구약”(AT), 뒤의 것을 “신약”(NT)으로 줄여 씁니다. 또 대문자 M.은 학생에게 두 성경 모두에서 해당 절의 난외 독법을 가리킵니다.

2. 그 초기 히위 족속 사이에서 하몰이 디나에게 한 일은 실제로 결혼을 뜻했습니다. 야곱에게 다른 딸들도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 46:7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The Herods*, 15쪽
4. 탈무드에는 벤 시라의 인용이 "적어도 마흔 개" 들어 있습니다 – *Lange's Commentaries*, 외경, 276쪽.